

무등산 입구에 오롯이 선 '무등산 시인' 시비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눈을 감아도 그 동서남북
서서 바라보는 자리가 화순인 듯 담양인 듯
광주 어디 서서 보아도 크고 넉넉함이며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춘하추동 계절 없이 넘어선
언제나 붉은빛이 푸른빛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만 자색이 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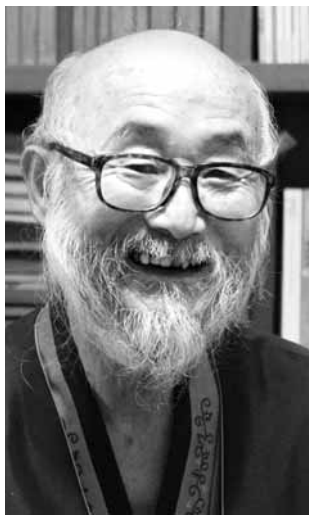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알맞게 높고 알맞게 가난하고
그 안에 수많은 장단과 고저
역사가 바뀌어 되고 흠이 된 긴 이야기

평생 한 번만이라도 원노니
낮에도 별들이 내려와 노는
너털경같이 밤에도 태양이 뜨는
점목이 바로 함성인 큰사람 같이

(범대순 '무등산송')



무등산 탐방지원센터 잔디광장에 세워진 '범대순 시비'



고 범대순 시인

장, 박관서 광주 전남작가회의 회장, 나종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고재중 시인, 김광 시인(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장) 등 추진위원들과 제자들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문학 정신과 뜻을 기린다.

가로 2m, 세로 1m 크기인 시비 전면에는 고인의 대표작 '무등산송'이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설립취지와 약력, 추진위원 명단 등이 새겨져 있다. 비문 글씨는 우석 박신근의 작품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광동 시비건립추진위 간사(문학대표)의 건립 경위 보고, 정규철 시비건립추진위 대표의 인사말,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김희수 시인의 시 낭송, 유족 대표로 큰아들 범희승 전 화순전남대병원장의 답사가 예정돼 있다.

1930년 광주시 북구 생운동에서 태어난 범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1958년 '문학예술'에 고려대 은사 조지훈 선생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시집 '흑

인고수 루이의 북'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단에 존재를 드러낸다.

60여 년 가까운 창작 활동을 통해 '기승전결' '파안대소' '산하' 등 30여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펴냈으며 제12회 영랑시문학상과 제29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시인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영문학자로서의 삶에도 충실해 시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학' '트윈의 미학' 등을 발간, 시의 이론 정립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제막식 이후에는 오후 7시부터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범대순 시인 추모행사로 무등산 시낭송회가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흐르는 무등산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낭송회에서는 시낭송, 공연, 토크 등을 통해 범대순 시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양지연 MC의 진행으로 오프닝 공연에서는 대금 공연(문성재)이 예정돼 있다. 이어 광주시낭송협회 박진찬 회장의 '큰 바위의 꿈을', 김지연 시낭송가의 '무등산 서석대', 고인의 큰딸인 범영숙 교수의 피아노 공연(베토벤 월광 소나타)이 펼쳐진다.

'무등산과 범대순'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토크도 진행된다. 고인과 얽힌 추억과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임경화의 '무등을 바라보며', 심연옥의 '새인봉 노래', 최도순의 '노홍의 시간', 양순영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정장훈 무등산국립공원소장의 '무등산송'의 시낭송이 펼쳐진다.

국립교향악단원을 역임했던 임석인의 색소폰 연주(백학, 타카행진곡, 왈츠) 등도 무등산 자락에 울려 퍼진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범대순 시인 4주기 맞아 오늘 제막식

대표작 '무등산송' 전문 새겨

시낭송회 등 4주기 추모행사도

"나의 산행은 잃어버린 무등산의 원시를 찾아가는 고산고수(高山苦水)의 길이다."

자신의 무등산 산행을 '요산요수'가 아닌 '고산고수'로 표현한 범대순 시인(1930~2014). 범 시인은 생전에 무등산 1100회, 서석대 160회를 오르내렸다. 스스로 이 횡수를 밝힌 것은 그의 산행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스토리였기 때문이다. 한겨울 영하 30도의 서석대 등정과 폭설폭우 속의 등반이 거기에 있다.

광주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의문, 세계의 근원에 대한 깊은 사유는 그의 고행의 산행에서 깃뚫었다. 무등산을 노래한 시만도 100여 편을 남을 만큼 그의 무등산 사랑은 지극했다.

'무등산 시인' 범대순의 4주기를 맞아 시비 건립 제막식이 24일 오후 5시 탐방지원센터 잔디광장(문빈정사 아래)에서 열린다.

제막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정규철 추진위원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후식 광주일보 논설실

'지역어문학 가치 조명' 내일 전남대 학술대회

지역어문학을 통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국문과 BK21+사업단(단장 신해진 교수)은 오는 25일 인문대 1호관 학술회의실에서 '주(住)·유(遊)와 지역어문학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삶의 거처이자 문화의 향유 공간인 '주(住)와', 예술과 문화를 향유 전송

하는 행위로서의 '유(遊)에 대한 학술담론들을 나누는 자리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는 김신중 교수(전남대 국문학과)의 '제영을 통해 본 언자루의 문화적 표상'이라는 기획발표회를 시작으로, '수필가 조희관과 '흑산수첩'(박태일 경남대 교수), '한국어의 공간인식에 대한

고찰'(강원대 최홍열 교수가 진행된다.

이어 '연변 지역 SNS 코드스위칭에 반영된 언어 외적 요인 연구'(람빈 전남대 박사과정), '전남 방언 보조용어 '불다'의 의미 기능 고찰'(김다솔 전남대 박사과정), '조선 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서술 방식과 내면의 갈등'(유정란 고려대 박사과정), '김동리의 기독교 계열 소설 창작과 그 우발적 결과'(전계성 경북대 박사과정) 등의 주제발표도 이뤄진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포악한 권력에 맞선 작은 영웅들

송은일 장편 '달의 습격'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1995) 출신 소설가 송은일은 무속인, 장사지, 사당패 등 하층민의 영혼을 되살려 내는 이야기꾼이다. 지난해 대하소설 '반야'를 통해 역사의 뒤편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민중들을 무대 위로 올려 주목을 받았던 작가는 최근 장편 '달의 습격'(시진)을 펴냈다.

소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한국 사회에 군림해 온 재벌, 정치권력의 폭력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반란을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대형로펌의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인 아버지와 세계적 여성학자인 어머니를 둔 서혜우가 DH그룹 총수 아들이자 국회의원인 양재문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남편이 남자 보좌관과 정사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던 뒤 고뇌에 빠진다. 그러던 중 그녀는 어린 시절 만났던 무당의 손자, 지금은 영화 감독이 된 휘와 헤어지며 운명적 사랑에 빠진다. 두 집안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권력을 지키려 협박에서 총격까지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다.

소설에서 펼쳐지는 부패한 힘과 주인공들 사이의 숨 막히도록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이다. 무도한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



의 부패함을 감추고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파괴와 기만으로 시대를 뒤집어 놓으려 한다.

로까지 얽히러다치러다치며 이어져 온 한국의 현대사를 그대로 담았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기억이자 경험, 한국의 생생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분갈이하고 작년에 너무 지란 나뭇가지들을 잘라낼 때마다 생각한다. 부리를 깨뜨려 새 부리를 만들고 날개깃을 뽑아 새 깃을 뚫어내는 어떤 독수리! 어떤 독수리를 생각하는 불철 어느 한때, 나도 자못 비장하다. 이 봄, 내 분갈이는 아직 진행 중이다"며 출간 의미를 밝힌다.

한편 송 작가는 2000년 '여성 동아' 장편에 '아스피린 두 알'이 당선됐으며 장편 '불꽃섬', '소울 메이트', '도둑의 누이', 소설집 '달국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테너 유기수 독창회 29일 목포문예회관

테너 유기수(사진) 귀국독창회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헨델, 슈베르트, 도나우디, 구노, 변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벤자민 브리튼,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프란츠 레하르 등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작곡가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노 정희연, 바이올린 윤성근이 출연한다. 국립목포대학교를 졸업한 유 씨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디플롬 과정을 졸업하고 할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탈리아 아레나 국제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을 졸업한 후 슈베르트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독일 할버슈타트 국립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하며 국제적 경력을 쌓아갔다.

2017년 귀국 후 오페라와 예술가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예술고등학교 교사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전서 2만원. 문의 010-4202-9982. /전문재기자 e6j621@

맨부커상에 폴란드 토크라추크의 '플라이츠'

한강 두번째 수상은 불발

올해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에 폴란드 작가 올라 토크라추크(사진)의 '플라이츠'가 선정됐다.

2016년에 이어 최종심에 오른 한강(48)의 두 번째 수상은 불발에 그쳤다. 앞서 한강은 지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으로는 최초 맨부커상을 받았다.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 겸 만찬에서 토크라추크의 '플라이츠'를 2018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앞서 맨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한강의 '흰'을 포함한 전체 108편의 1차 후보를 선정했으며 지난날 다시 6편의 최종후보를 추렸다.



소설 '플라이츠'는 인간 해부학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현대 인간 이면에 드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그렸다.

이번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토크라추크의 '플라이츠', 한강의 '흰' 외에도 이라크 작가 아흐메드 사다위의 '프랑켄슈타인 인 바그다드',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의 '더 월드 고즈 온',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무뇨즈 풀리아의 '라이크 어 페이딩 슈도'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용,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